

데스크 시각

김영란법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명타가 될 거라고도 한다.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법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쏟아진다. 또 법의 모호함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거라는 비판도 있다.

축쇄로만 생각해서야

그릴 수 있다. 물론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다. 시행 초기에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다. 단언컨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이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거나 비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은 투명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시대적 요청이다. 오늘 발효된 이 법으로 후세대에 청렴 한국의 시작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쓰이고 있다.

시발점이라는 거창함과 법이 주는 무게감이 있지만 당장 이 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다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의 원조 격인 미국의

'25달러 리미트'(뇌물·부당 이득 및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정한 선물 상한선)에서 찾을 수 있다. 1962년 제정돼 로비스트법(1995년)에까지 25달러 제한을 두게 한 이 법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법으로만 존재할 뿐 거의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살다 온 이가 들려준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생활 초기에 자녀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 와 한국에서처럼 촛지나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이웃에 사는 교포에게 물었더니 극구 말리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언하기를, 25달러짜리 케이크와 감사 편지를 써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타 선물의 기준도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거라고 했다.

그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넘치지 않고 치우침 없는 합리적인 사회의 단면을 봤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규범으로 수용을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이다. 법 이전에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기본 프레임에 착근만 시킬 수 있다면 법은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만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 그리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 전부터 팽배해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야한다. 법 이전에 규범으로 받아들이자는 사회 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국회와 법률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독소 규정은 없는지 또는 과하거나 경직된 조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은펜클럽

조경(造景)에 대한 2% 아쉬움



박 홍 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예술이자 기술이고 사회적 수요의 산물이며, 심미성과 기능성과 공공성은 조경의 기본적 특성이자 조경이 지향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가 쉽지 않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경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쓰임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생태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가끔은 '조경'을 했다고 하는 곳 이 '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 '식재'(植栽)만 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식재란 식물을 심어 재배함 또는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이라고 지식백과에서는 설명한다. 조경을 한다는 것과 식재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거나 공공건물의 조경공간들을 볼 때 아쉬움 2%가 큰 오점으로 다가온다. 최근 에 마무리된 두 곳의 사례에 대한 의견이다.

광주향교 앞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비운, 녹지공간이 있다. 가려진 향교에 숨통을 열어줘 좋다. 그런데 조경디자인을 한 공원이기보다는 식재만 한 녹지 공간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이우만 들어 보자. 향교의 이념과 상징은 공자를 모시는 사당과 은행나무다. 특히 은행나무는 공자의 철학과 가

르침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향교 입구는 비어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구엔 은행나무에 버금가는 커다란 소나무를 군집하여 심었다. 건축물로서의 향교와 향교의 기본철학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커다란 소나무를 심어 건물과 은행나무를 가리지는 않았어야 했다. 나무 중의 으뜸은 소나무라고 한다. 좋은 소나무로 빈 공간에 식재는 잘했지만 향교의 특성과 그 주변상황에 대한 고려는 아쉽다.

동구 동명동에 청년기술창업지원센터인 아이플렉스(I-PLEX)가 완공되었다. 이곳의 녹지공간도 좁지만 괜찮다. 그런데 커다란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건물에 너무 가까이 심었다. 나무는 자란다.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서로에게 안중다. 건물과 적절한 이격이 필요하다. 좋은 나무를 빈 공간에 식재는 잘했지만 제대로 된 조경디자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건축가로서 조경에 대한 몇 가지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입체적 환경 분석이 되어야 한다. 장소의 인문적 성격, 주변에 있는 건물과 기존의 식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도로와 접한 기존 가로수의 수종과 수령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계획할 땅에 만 지중하다보면 주변의 좋은 자산과 괴리가

생기는 녹지공간으로 전락한다. 특히 도심 속 조경일수록 더욱 그렇다.

둘째, 나무는 성장한다. 양립동엔 100년의 역사가 가까운 선교사 사택이 있다. 바로 옆에 건물보다 훨씬 높은 나무가 무성하다. 당시엔 작은 나무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집을 위한 나무가 반대로 주인이 되어 집에 피해를 준다. 나무는 자란다. 장기적으로 건축물과 관계를 고려하여 나무 종류와 위치를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채우려는 욕심을 조금만 갖자. 도심공원이나 관광지 마당에 가면 텅 빈 맛이 부족하다. 빈 곳을 두지 않는다. 나무를 뺀 채 심는다. 도심과 소규모 녹지에선 식재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렸으면 한다. 법규정에 식재 비율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잔디밭에 심어진 한그루 나무만으로도 충분한 쉼의 공간과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다 것도 알아야 한다.

녹지공간은 필요하다. 식재만 한 녹지가 아니라, 잘 디자인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는 생태예술로서 멋진 조경공간을 많이 만나고 싶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한아름 품어야 할 아이들 '비보호 청소년'



김 재 형 광주문화재단 대학생기자단·전남대 신방과

들을 일컫는다. 우리에게 '새터민'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있지만 이들은 '새터민'으로 불리지 못한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새터민'도 '다문화가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인 이들은 그래서 '비보호 청소년'으로 불린다.

이 아이들에게 '우주여행' 프로그램은 참 특별하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문화탐방을 함께한 아이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 치파오(중국 전통의상)는 알아도 한복은 모르는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그저 낯선 문화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지 1년도 채 안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오감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해야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주 한옥마을 탐방은 성공적이었다. 한옥마을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한복을 마주했다. 낯선 한복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아이들 옆에는 중국어 통역과 멘토 역할을 맡은 한국 대학생들이 있었다. 친구를 자처한 대학생들은 아이들 옆에 꼭 붙어 다니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했다. 함께 저고리와 치마를 골라주고, 족두리와 갓을 써보고 전통문 앞에서, 처마 아래에서 같이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을 아이들, 아이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뛰어 놀고 싶어서 가장 먼저 한글을 배우려 한다고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곁에는 한아름 품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

요하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함께 어울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들과 비보호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문화를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친구니까.

2014년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보호 청소년 수는 약 3만 명, 몽골과 태국 등 제3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여성과 그 자녀까지 합하면 약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인생나눔교실에 대학생들이 함께 했지만, 다음에는 한국 청소년들이 자리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생겨났으면 좋겠다. 한국이 따뜻한 손길로 낯선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社 說

민생 외면 국회 파행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제부터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정직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국회는 어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의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려 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개점휴업 상태였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반쪽 국감'이 강행됐다.

꼬여만 가는 사태는 수습책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로 전환하는 등 초강경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지만 마땅한 명분 찾기가 쉽지 않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민생고만 더욱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분명한 사실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회차나마 정치권에서 출구 찾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사태의 장본인 격인 김재수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으므로 스스로 기거를 결정해 꼭 막힌 정국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국정 전반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역시 단식보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세균 의장은 국회 수장에 걸맞게 적극 중재에 나서고 두 야당도 정치 공세를 자제해 속히 국회가 본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야말로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부동산 보이스포싱 피해 은행이 외면해서야

'보이스포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홍보가 강화되면서 기관 사칭 보이스포싱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부동산 보이스포싱'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 일선경찰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급매물을 내놓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사기범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매도자에게 전화를 한 뒤 높은 조건을 내세우며 관리금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다. 상가나 주택 임대 광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다며 광고비를 요구한 뒤 잠적하는 행태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전화사기를 보이스포싱으로 판단하는 경찰과 달리 일선 은행들은 이를 보이스포싱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때

문에 피해자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난 뒤에야 지금 보이스포싱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부동산 보이스포싱'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은행권은 법에 따라 보이스포싱의 경우 피해자들의 즉각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이스포싱'은 '거래'에 해당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부동산 전화 사기'는 통신상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돈을 가로챌 수 있는 보이스포싱이 맞다는 게 중론이다. 계좌 압수 영장도 보이스포싱으로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들은 '거래' 운운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보이스포싱'의 경우 초동단계를 거쳐 지급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은 부동산 보이스포싱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를 받아들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3월 초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81세 할아버지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심장질환을 앓으면서도 초등학교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하던 할아버지였다. 지난 7월에는 양동에서 60세 남자가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혼 후 5년 전부터 혼자 살았는데 경찰은 방안에서 3개월치 약 봉투와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15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다 숨지는 '고독사'는 이제 흔한 일이 됐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만이 고독사의 대상이 되

가족이 있지던 장례식에 오기를 꺼리는 사람, 유일한 친구인 고인이 입장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쓰며 위로움을 달래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 등 수많은 군상을 만난다. 지인이 없는 장례식에는 직접 추모사를 써 주기도 하고 장례식을 혼자 지키기도 한다. 이 영화가 주는 의미는 쓸쓸한 죽음을 통해 오히려 고인을 돌리려고 있던 수많은 사람을 찾아내어 그의 삶이 외롭지 않았다는 위로를 건넨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손길을 내미는 정적이 있다. 노인은 것은 아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가동민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유령고독사(고독사)는 1245명으로 4년 전 695명에 비해 179%나 늘었다.

2년 전 개봉한 영화 '스틸 라이프'는 고독사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한다. 주인공 존 메이는 22년차 공무원으로 장례 담당이 업무다. 고독사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위해 지인들을 초대하는 일인데, 유품을 단서 삼아 고인이 만들어 낸 삶의 궤적을 추적한다.

홀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다. 하지만 고독사 지킴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적잖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고독사 지킴이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